



트럼프 선전과 주가 강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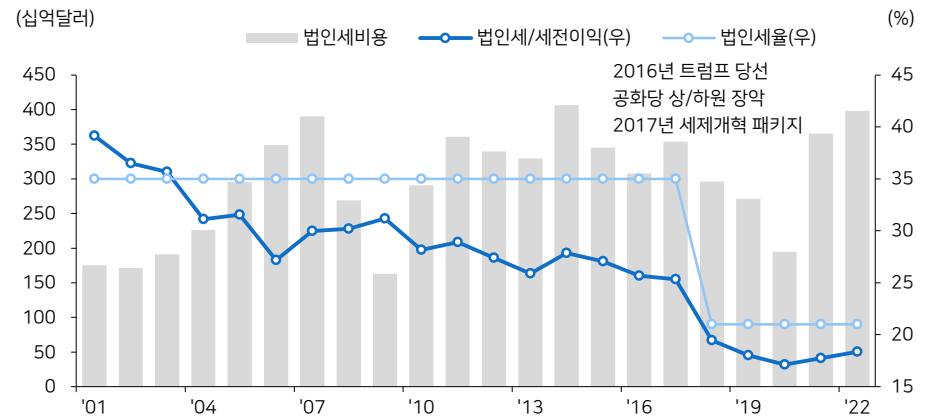
S&P500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S&P500은 연초대비 1.6% 상승, 업종별로는 기술주 중심 랠리 진행 중. IT(+5.3%), 커뮤니케이션(+4.3%), 헬스케어(+2.6%), 금융(+1.2%)이 연초대비 상승, 에너지(-4.1%), 소재(-3.6%) 업종 수익률이 가장 부진

현지 시간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의 실제 당선을 기대하는 시각 점증.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점점 커지는 중. 이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를 돌이켜보면 변동성은 불편하지만, 2017년~2020년 사이 주가는 우상향이었고 기술주 중심으로 수익률도 좋았음

그 근거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 트럼프는 주요 공약으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함. 실제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으로 미국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음

미국 비영리재단 Tax Foundation(2023년 10월)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의 장기적 경제효과는 미국 GDP를 0.5%, 자본 스톡을 0.9%, 임금을 0.4% 상승시키며 9만 1천개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 우려를 키울 수는 있음.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문제인데, 트럼프는 2019년 무역수지 흑자 등을 목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음. 원인과 결과는 다르지만, '19년 7월 예방적 금리인하도 실제로 단행

그림1 미국 법인세율과 S&P500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 및 법인세율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